

2008 새해설계 ③

포천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양호식

‘배드민턴 빌리지’ 전용구장 설립 절실

전국제패 우수선수 배출 도시다운 시스템 필요



“배드민턴 종목은 주민들의 사랑 받는 스포츠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여가선용과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배드민턴 삼락(三樂)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증진입니다. 둘째는 좋은 이웃을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생활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남을 먼저 배려하는 정신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월여 취임하여 임기 2년의 회장을 연임하면서 포천시배드민턴협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포천시배드민턴협회는 8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평소 연습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며 익힌 실력을 겨뤄 볼 수 있도록 각종 시·도 대회는 물론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포천시는 우수한 배드민턴 선수를 배출할 지역으로 유명하다. 엘리트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15년 이상 여자 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코치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동호인들이 늘어났고 이중에서 엘리트 선수로의 육성이 가능했으며 결국 전국 우승을 제패하는 우수선수가 배출된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선수를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는 것은 포천시청 설립팀의 창단도 큰 몫을 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서로 순환되는 관계형성이 포천시 배드민턴 협회 발전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 양 회장은 또 포천시에서 우수 선수 발굴은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소질 있는 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국가대표 트레이너가 직접 교육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체육 배드민턴 협회 동호인들이 자녀들을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양 회장은 전용구장의 설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고양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에 전용구장이 건축중이거나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있는 포천시에 전용구장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포천시에는 타시군의 전용구장과는 달리 배드민턴 스쿨, 합숙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배드민턴 빌리지 건설을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닝센터도 유치하고 외국선수들을 위한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육성하는 실기 및 이론지도 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양 회장은 “클럽 탐방과 우수 선수 인플루언서 등을 보도록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새해에는 신입회원증급위원회, 심판위원회, 재정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동호인 관리와 증가하는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심판교육은 물론 예산의 자체조달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인 포천시배드민턴협회 올해 주요경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8회 경기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3.15~16) ▶제5회 포천시 협회장기 대회(4.13) ▶제54회 경기도체육대회(엘리트, 5.15~17) ▶제6회 경기도연합회 청춘·장년부대회(6.22) ▶제4회 포천시협회장기 부녀부대회(6월중) ▶제5회 경기도연합회장기 부녀부대회(7월중) ▶제1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대추전(9.26~27) ▶제5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대회(10월중) ▶2008 신항은장배 한마음리그(10월중) ▶제16회 경기도연합회장기대회(11.3~4) ▶2008 경기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11월중) ▶제6회 삼천배 배드민턴대회(11월중) ▶제2회 포천시협회장기 청·중장년부대회(11월중) ▶2008년도 정기총회(12월중)

추천! 이야기 한마당

공자께서 당신이 우수한 제자들의 스승이 된 까닭



이보용 본지전문위원

중국 고전인 「열자(列子)」에 보면 공자(孔子)께서 당신이 우수한 제자들의 스승이 된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로(子路)의 사람됨은 어떻습니까?” 그의 용기는 내가 못미치지. “자장(子張)은 어떤가요?” 자장의 점잖음은 나보다 뛰어나지. “그러면 그 네 사람이 선생님을 모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안회가 인도(仁道)가 있으며 권도(勸道)를 쓸 줄 모르고 자공은 언변은 좋되 침묵이 달변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로는 남보다 용기는 있으나 참을 때를 알지 못하며 자장은 점잖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까닭이지. 이런 이유로 나를 그들의 스승이 되게 한 것이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보다 먼저 깨친 것도 지혜로웠기 때문이고, 공자님이 불세출의 제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지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백과사전을 다 외운다 해도 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자 무식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지식의 분량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봉화 축서사 무어스님

룩펠러의 삶

룩펠러는 33세에 백만 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갈 때, 병원 로비에 실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

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후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은측은 병원이 없어 입원이 안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 시켜 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룩펠러는 끝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룩펠러는 얼마나 기뻐던지 나중에 그는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때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나중에 그는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의 011-342-5834)

지역혁신 강화, 활기찬 지역공동체 건설

제29차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29차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가평군의회(의장 정진구)에서 개최됐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원내식 협의회장(양주시의회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가평군의회 정진구 의장의 환영사와 이진용가평군

수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회 형남선의장이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관련 1단계 발전종합계획의 확대반영 건의의견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의장협의회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기존 국비사업으로 예정된 사업만을 반영한 1단계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원대식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경낙원도시 에코피아 가평에서 의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북부는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지역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경기북부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갖춘 활기찬 지역 공동체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9차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가평군의회(의장 정진구)에서 개최됐다.

제30차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 연천군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식당서 화재 1명 사망, 1명 중태

경찰과 소방당국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

2월17일 오전10시17분경 포천시 동교동 동교뉴시터 인근 조립식 건물의 한 식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포천소방서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관계자 김모씨(24)가 질식사 숨졌으며 식당종업원 권모씨(55)는 화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1층 내부 132㎡를 태우고 발생 20분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내역을 조사중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이야기

겨울에 핀 장미

따르릉 질러온 전화. 이른 아침부터 어룡룡에 계신다는 할머니의 제보를 받고 포천동 고창식 할아버님댁을 찾았다. 65세의 뇌병변 3급 장애인인데 조그마하게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 말씀도 어눌하고 오른 쪽은 거의 마비 증세를 보이는 고창식 할아버님을 식재대 옆 부엌바닥에서 자리하나 깔고 생활하고 있다.

하터도 마련해 드렸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옥매트와 쌀 40kg, 현금 10만원, 양말 등등 지원해 주셔서 고창식 할아버님의 겨울나기는 해결이 된 셈이다. 사실상 봉사하는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노력봉사는 기술도 힘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불령 없이 한

마음으로 일사천리 해결사 노릇해 준 포천동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한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식구들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리고 싶다. 스쳐지나가는 인연보다는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박애자 주부명예자문위원



고창식 할아버님댁에서 간이침대를 만들고 있는 포천동바르게살기 위원들

Advertisement for Young747 (www.young747.com) featuring Kim Young-woo, a candidate for the 2008 local elections. The ad promotes his 'clean and honest policy' and lists his qual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Daeyil Biphil Total (대일비닐총판). The ad lists various products like HD, PE, PP, and PVC,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Pocheon branch.